

# WTO/DDA 농업협상 동향

최규칠 사무총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DDA 소규모 막판농업협상이 7월21일부터 약10일간에 걸친 협상이 결렬 되었다. 주요국 각료회의에서 마지막 타협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일부 쟁점들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여 라미 사무총장의 의장문서가 제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의 논의가 개최되어 논의를 계속했으나, 특히 인도가 개도국 특별 긴급관세에 대해 요건 완화를 강하게 주장했으며 중국도 비농산물협상에서 분야별 자유화 참여에 반대하는 등 입장을 표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수출 개도국들은 농업분야에서의 SSM 및 NAMA에서의 개도국시장 개방수준 등에 대해 관한 반대입장을 표했다.

금번 협상 결렬로 향후 1-2년 내에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요인은 금년11월 미국대선, 내년 인도총선, EU집행위원교체, WTO사무총장 임기종료 등이 가장 큰 요인이며, 한편 최근 미국 및 브라질 등이 향후 1-2개월 내 협상재개 의사를 표명하는 등 조만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농림부관계자는 말했다.

특히 이번 각료회의에서의 합의도출 실패는 실

무협상을 통해 쟁점이슈를 충분히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쟁점사항이 각료회의에 회부된점 등이 주요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개도국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는 바, 인도,중국,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이 선진국과 대립하는 양상이 전개 되었고, 향후 협상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협상이 다시 전개될 경우에는 급속도로 전개 될 것으로 판단되어 농림수산식품부 정학수 제1차관 등 우리대표단은 G10, G33 그룹 등과 공조활동을 강화하면서 최종 타협안에 우리의 의견이 보다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8월8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과에서는 WTO/DDA농업협상동향 등을 각 농어업, 축산농가 대표자들에게 금번 협상이 결렬된 취지 및 향후 대책 등을 발표 하였다.

따라서 우리천연꿀은 민감품목으로 적용받도록 노력하고 한·미 FTA협상 기준에 준하여 정부와 협상을 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 □ 주요품목 감축 후 관세율적용 수준(잠정타협안)

품 목	현행관세 (%)	선진국 기준		개도국 기준	
		일반품목기준	민감품목기준	일반품목기준	민감품목기준
천연꿀	243	72.9	186.3	129.6	205.2

※ 관세감축율은 선진국기준시 : 50/57/64/70,  
개도국기준시 : 33.3/38/42.7/46.7 적용함.